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던 한 레위인이 그의 본분을 잃고 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의 첩이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나 결국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에 레위인은 첩을 데려 오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가게 되고 그녀의 아버지의 용서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 제사장과 레위인의 영적 상태

본문 1절과 같이 사사 시대에는 인간 왕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써 신정 통치를 하신 기간이었습니다. 비록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이 시기에 임시적으로 부르신 자들이었지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민족의 영적 지도자들로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잘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따로 지파를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생계와 도움을 받게 하신 이유도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일에 솔선수범하며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까닭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1장을 보면 제사장이 지켜야 규례는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 엄격했고 특히 혼인관계에 있어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레 21:4,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7-8,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 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와는 거룩함이니라.”; 13-15,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나 창녀 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레위인은 거룩한 규례를 어기고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게 됩니다. 레위인은 첩과 함께 그의 본처가 있는 에브라임에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레위인의 첩이 행음을 하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레위인이었다면 첩을 얻는 것도 말이 안되지만 이런 일을 겪게 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첩과도 손절해야 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피고 방탕한 자신의 첩을 책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녀의 비위를 맞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오늘 본문 속의 레위인이 얼마나 부패했고 자신의 거룩한 본분과는 상관없이 살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한 미가의 신당 레위인을 비롯한 오늘 본문까지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 우유부단한 레위인

레위인이 자신의 바람난 첩을 데려오기 위해 베들레헴 그녀의 아버지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첩의 아버지는 자기 딸의 일로 인해 근심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자신의 집에 온 것을 보고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입장에서 레위인이 부정한 딸을 버리지 않고 찾으러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첩의 아버지는 레위인을 바로 보내지 않고 몇 일간 그를 강권하여 극진히 대접합니다. 물론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행해지던 좋은 관습이었지만 장인은 사위인 레위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더 노력했을 것입니다. 레위인은 계속해서 장인의 호의를 거절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다가 결국 5일이 지나서야 그의 첩과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는 아마도 안식일 전에 집으로 돌아가기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레위인 일행이 장인의 만류에 늦게 출발하면서 해가 지고 도착한 곳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브아는 이들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15절,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고 돌아 들어가서 성을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당시는 인적이 드문 밤이기도 했지만 이는 본문 16절 이하로부터 이어질 끔찍한 일에 대한 복선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약 1:15)**’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죄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우리가 그 죄를 성령 안에서 다스리지 않으면 마치 작은 불이 온 집을 태우는 것처럼 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맏지 말아야 하는 죄의 열매입니다. 예전에 목상했던 사사 기드온의 경우도 그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세겜에서 첩을 얻게 됨으로써 아비멜렉이라는 괴물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거절했던 왕의 자리를 탐내어 세겜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한 날에 모두 살육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아마 기드온은 그의 죄가 이처럼 큰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인과 첩의 경우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악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또 우리 안에 여전히 허용하고 있는 죄의 문제가 없는지 세심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신앙과 삶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과 속이 모두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목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목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2. 미국을 위한 기도: 새로운 대통령과 행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정의와 사랑으로 잘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소서. 또 전국적으로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교육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유아부 전도사님과 교사들 그리고 영유아부에 속한 각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임상순 선교사님과 가정의 건강 그리고 사역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